

지상설법

마음 받을 잘 가꾸자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등글고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성사 주교 혜정 정사

일상의 나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 보...
어제의 좋지 않은 감정을 버리지 못해...

하루에도 내 마음은 만생만멸(萬生萬滅)이다. 수 만가지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이와같은 마음은 바로 분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체 마음에 분별을 일으키는 환화(幻化)처럼 실상(實相)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너와 나, 좋은 것 나쁜 것이라 구분하고 차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닦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진언염수 수행은 바로 분별없는 마음을 닦아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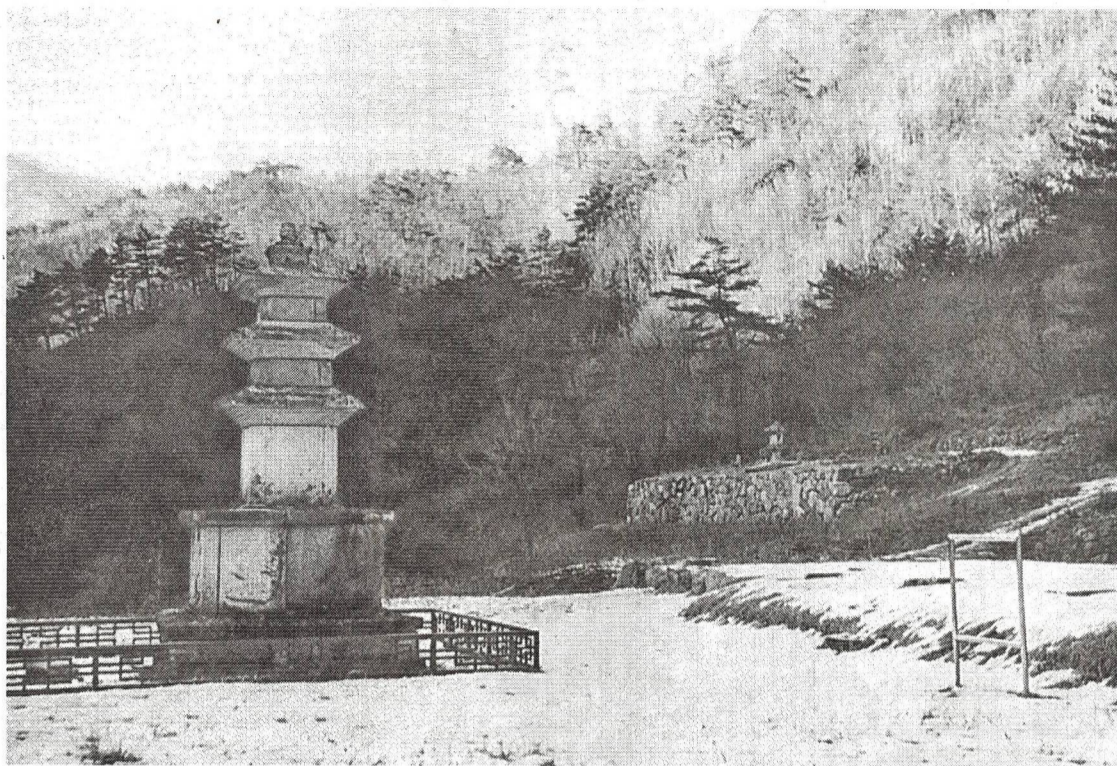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심체(心體)는 본래부터 불생불멸(不生不滅)하며, 자성(自性)이 청정하여 장애(障礙)가 없고 분별을 여린 까닭에 두루 평등하며 시방에 원만하여 구경(究竟)에 일상(一相)...

이라 돌이 없고 분별이 없으며 변치 않고 따르지 아니하여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유하면, 그릇 만드는데 사람이 한 가지 진흙으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한 불을 때어서 여러 가지 그릇을 구어 만들지 마는 이 진흙의 성질은 차별이 없고 불이 타는 것도 그러하여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마음은 무상(無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분별하여 오 늘은 이 마음을 내었다가 내일은 저 마음을 낸곤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중생심이라 하는가 봅니다.

중생의 마음을 경...
이러한 마음의 본체(本體)를 '유마경'에서는 '마음은 안에...

로 말미암아 과보를 받는 것이니 그 마음은 인연을 좇아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신론'에서도 '세간의 모든 경계가...

다 중생의 무명망심(無明妄心)에 의하여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니 이렇고로 일체법이 거울 가운데 형상과 같아서 체(體)를 가히 얻을 것이 없으나 다만 마음이 생기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멀하면 법도 멀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緣)하여서 일어나는(起)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 또한 연기(緣起)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유하면, 큰 바다의 물결은 팽펄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파도가 일어나서 산과 골짜기에 부딪치기를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식(識)도 그러하여 경계(境界)의 바람이 불어 오면 모든 식(識)의 파도가 일어나 전전(轉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욕을 취하거나 마음이 아귀를 취하거나 마음이 축생을 취하거나 마음이 천인(天人)을 취하여 형상과 모양을 짓게 되는 것은 다 마음이 한 것이라. 능히 마음을 항복받고 도(道)를 행하는 사람은 그 겁이 무수하여 불도(佛道)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감로의 법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천상(天上)에 가게 하며 마음으로 생각하여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그 복덕을 받는 것이니, 선(善)을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안신(安身)의 근본을 짓게 되고, 뜻에 일체의 선(善)을 생각하는...



일체 마음에 분별을 일으키는 환화(幻化)처럼 실상(實相)이 없는 까닭이다 진정한 진언염수 수행은 바로 분별없는 마음을 닦아 지니는 것

전말씀에서 좀더 살펴 보도록 하였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삼계가 다 마음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십이인연도 그러하고 생사(生死)가 다 마음으로 되는 것이다. 마음이 만약 멀하면 생사 또한 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관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청정히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여야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니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하며 마음이 번잡하고 더러운 까닭에 세계도 번란(煩亂)하고 더러운 것이다. 나의 법은 마음으로써 주장...

도 있는 것이 아니며, 밖에도 있는 것이 아니며 중간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체성(體性)을 '승사유법전소문경'은 '심성(心性)은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드는 것이 없으니, 비유하면 허공에 연기나 티끌이나 구름이 덮혀서 밝고 맑지 아니하나 능히 허공 그 자체에는 물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도 바르지 못한 생각이 있어서 모든 번뇌를 일으키나 그 마음의 자성(自性)은 청정하여 더럽게 물들이지 못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또 '제법집요경'에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을 짓고, 마음으...

여 천상위(天上位)를 얻는 것과 같습니...

그런고로, 우리는 마음(心) 닦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수심(修心) 수행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깊은 못이 맑고 고요하여서 물결에도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를 얻고 진리를 들어서 그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여 질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기 마음을 조복(調伏)하는 사람만이 참된 진언수행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생활속의 밀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 마음가꾸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는 것인가 봅니다. 어떤 날은 웬지 즐겁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뭔가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가, 괴로워 하기도 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면 성취욕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지나온 일주일일을 돌이켜보면서 그 동안의 하루의 일과를 쫓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시작부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관조하는 시간보다도 내용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씻고, 외...

있었고 동창회, 회사 회식 등 다양한 모임들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얘기들이 다 똑같이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렇듯 우리는 이 몸뚱이아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몸의 주인인 마음에게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몸의 주인인 마음에게는 별반 신경도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하면, 여유가 없어서,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던가, 때부터 소리한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마음 고하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투로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진언불공으로 마음을 살피면 세상이 달리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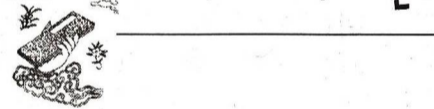
모를 다듬고 치장하면서 우리는 온통 우리의 외모의 멋과 이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디에 무엇을 잘하는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기를 쓰고 가서 먹어야만 하고, 몸이 허약하면 보약을 해서 먹고, 어떤 것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몸이 찌뿌둥하면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풀어야 하고... 하물며 구두가 더러워도 광을 냅니다. 때론 눈을 즐겁게 때론 귀를 즐겁게...

정말 귀찮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 머리만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몸에 투자하고 신경을 쓰듯 우리의 마음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문틈 사이의 햇빛에 수없이 떠다니며 보이는 먼지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해매는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길을 잃고 늘상 이렇게 허공에 떠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은 마부(馬夫)가 말을 다스리듯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꾸어야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가다듬고서 흐트러짐이 없는지, 진정 바른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끔 채찍질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하였습니다.

어느만큼 보이고 느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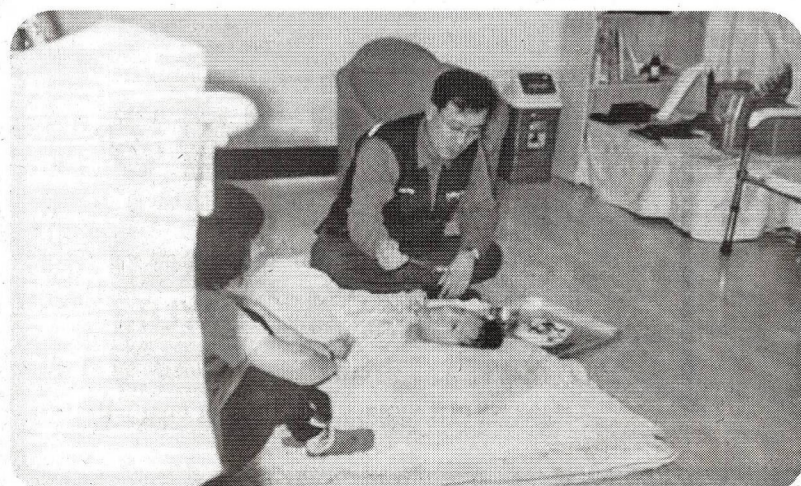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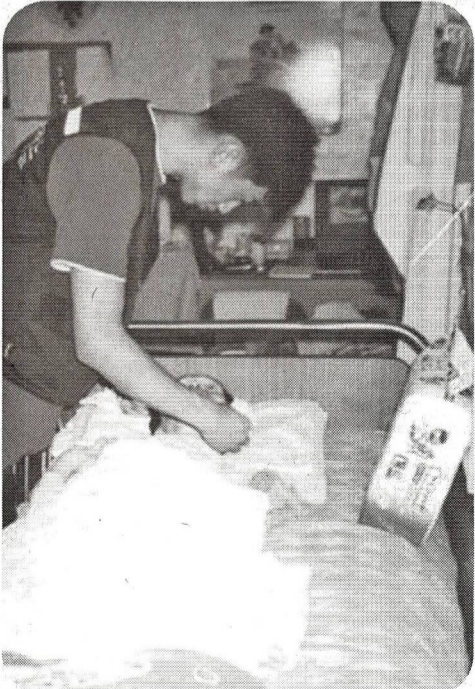


법신(法身)

법(法)으로서의 신체, 법을 신체로 삼는 것을 말하며, 부처님의 색신(色身)에 대한 술어이다. 이 때의 법은 부처님이 깨달은 절대적 이법(理法)이므로, 부처님의 본질(本質)은 법이 된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정법(正法)에, 대승(大乘)에서는 공극·절대의 존재에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나아가 밀교(密敎)는 이러한 절대적 진리(法)를 인격화(人格化)한다. 현교(顯敎)의...

법신불(法身佛)은 진리의 추상적인 존격(尊格)이지만, 밀교의 법신불은 진리가 우주적 생명체로서 구현된 된 불격(佛格)이다. 그러므로 현교에서는 법신이 설법을 하지 않지만, 밀교에서는 법신이 설법을 한다. 밀교에서는 제법(諸法)의 본체 그대로를 불신(佛身)으로 보며, 밀교의 시각에서 이 세계는 절대 가치의 부처의 몸 그대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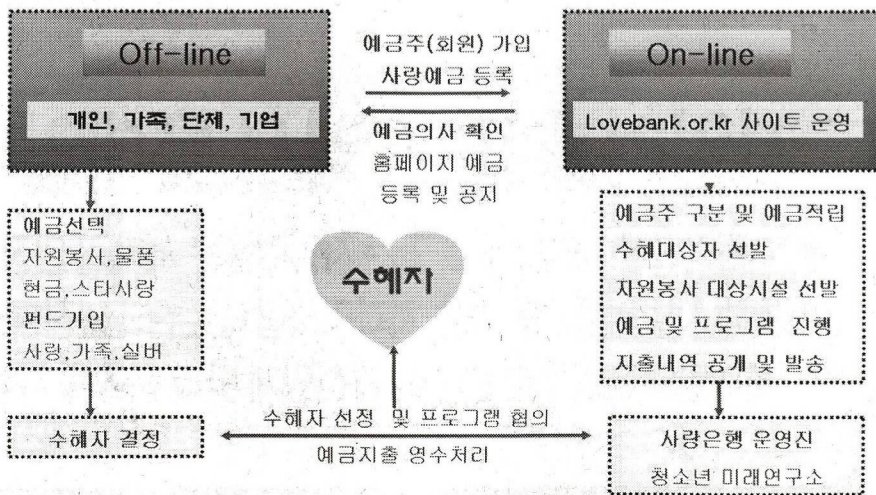
일체만물은 佛身の 화현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민화(民畵)

현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민화가 남아있다. 꾸민 없이 살아온 서민의 삶 속에서 태어난 민화(民畵)는 우리 겨레의 신화와 종교, 우리의 정성이 깃 들어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한국의 민화는 그 시초를 고려려 벽화부터 보고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나름대로의 민화적 표현이 있었으나 오늘날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만 불화 등에서 단편적으로 일부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민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 할 수 있으며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민화도 조선시대 후기의 것이다. 민화가 서구나 중국처럼 감상만을 위해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장벽(障幀)에 붙이고 병풍을 꾸며서 생활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적 기능을 가진 그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조선중기 이전의 민화는 계속되는 도배에 묻혀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의 기원은 일년 중 심분의 일이 겨울이므로 추운 겨울 외풍을 막기 위해 집 전체를 남쪽을 향해 작게 지었으며 창문도 작게 내었다.

또한 외풍을 막기 위해 도배를 하였다. 첫째 흙벽의 부스러기나 먼지가 흘러내리거나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둘째 벽 가장자리의 틈새에서 새어 나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셋째 방안의 분위기를 따스하고 아늑하게 하기 위해 도배를 하였고 창호지도 함께 발랐으며 2년-3년에 걸쳐 도배를 하였으니 벽에 장식한 민화가 오래도록 남아 있기 어려웠으리라.

정통회화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잡화, 속화, 별화 등으로 불리우며 천시 받던 민화에 정식으로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일본인 미술평론가 야나기무네오시(1889-1961)이다.

1919년 일본 교토에서 일본 민예품 전람회에 출품된 일본의 토속적 회화인 오쓰에(大津繪)에 민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37년 <공예>에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서 구입되는 그림을 민화라 하자"라고 발표함으로써 '민화'라는 어휘가 문자로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명확한 개념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일본의 토속회화에 붙여 준 이름이었고 야나기무네오시가 조선의 민속적 회화에 민화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1939년 <민예>에 실린 '불가사의한 조선 민화'라는 논문에서이다. 그는 이 글에서 민화의 특징으로 불가사의의 미의 극치, 무의식과 무의도의 개성을 들면서 "한국 민화는 상상도 못할 만큼 신성하고 자유스러운 작품이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한국 민화가 올바르게 개발되어 알려지기만 한다면 은 천하의 관심을 끌기 충분할지도 오늘날 한국 민화의 전통은 널리 스러져 가고 연구하려는 다짐도 없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야나기무네오시에 의해 한국의 민화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인정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애초에 야나기무네오시가 민화라고 가리킨 일본의 오쓰에는 길가에서 여행자들에게 그려 팔던

기념품으로 여기서 따온 듯한 민화라는 용어가 오히려 우리의 민화의 질을 오쓰에와 동격으로 여기는 결과를 낳거나 않을까 우려된다. 때문에 민화의 애호가인 김호연도 저속하고 국한된 일본의 오쓰에와 우리 민화가 동일시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우리의 민화는 우리 겨레의 생활 철학과 생활 감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생활 미술이므로 '겨레 그림' '민족회화'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야나기무네오시가 일본의 오쓰에를 민화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우리의 민화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 일부 인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영하, 내원사, 1998)

1970년대에 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민화를 연구하기에 이르러, 민화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민화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분류를 시도, 타당성이 있는 분류 방법도 내놓고 있다. 민화는 용도와 기법, 재질, 주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각각 그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화는 화제에 의한 분류가 가장 많지만 여러 가지 소재나 주제가 복합적으로 혼합된 것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조자용은 민화의 내용을 상징별로 수, 쌍복, 자복, 재복, 영복, 녹복, 덕복, 길상, 벽사, 민족등 열가지로 나누고 또 이를 다시 화제별로 나누어 20항목으로 전반적인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윤영수, 예경, 2000)

김호연, 김영하 등이 각각의 분류법을 제시하고 있다.

민화는 소박 담백한 표현 외에 익살이 있어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민화 그 자체의 작품성을 지시하고 그 속에서 예술성을 찾아 회화적 성격을 밝히는 자세로 민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소박, 담백, 익살 외에 정면성, 입체성, 과장성, 의인성, 환상성 등이 표현되어있고, 그러한 독특한 표현 중에는 근대 서구 미술보다 훨씬 앞선 것도 있다고 한다.

민화적 소재를 현대적 안목으로 재해석한 박상광(1904-1986), 고정된 자의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창조적인 시도를 하여 민화의 무제화되던 그림이나 잡가어린 그림 등을 변용하여 한국적 정서의 소박함을 표현한 윤보 김기창(1914-2001) 그는 민화에서 보이는 단순한 형태와 색채 그리고 무사된 원근법 소박성을 그의 그림에 그려내고 있다.

그 외 민화에는 기복신앙(수복복신앙)과 벽사 신앙이 녹아 있다. 민화는 민족의 가장 본질적인 의식과 정신문화가 담겨 있는 그림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미술사에서도 미술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민화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은 오늘날의 회화 표현 방법에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천이다. 시대의 미감이 충실하게 녹아있는 민화의 독특한 시각과 색채 기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한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민화는 민족의 가장 본질적인 의식과 정신문화가 담겨 있는 그림

불교 에세이

세상을 밝히는 연등

거리마다 연등이 걸린 모습이 보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의 본격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기계로 만들어진 등이 비와 바람과 햇볕을 견디며 걸려 있지만 전국의 사찰에는 불자님들의 손가락을 색색으로 물들인 연등이 만들어져 부처님 오신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등을 밝히는 전통은 근본설일체유부 현우경의 말씀에 '빈녀일등(貧女一燈)'의 고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됩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에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의 방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 것도 공양할 것이 없음을 한탄하던 중,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수천개의 등불로 밝히자 길 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여 일간의 돈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름을 사 수천 개의 등불 가운데 자신의 등불을 켜고는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등불이다. 그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

이처럼 연등은 마음의 정성과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밝히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리 먼 옛날이 아닌 과거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법당에 가면 맨 앞줄부터 소위 고위층,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이 붙은 등이 크기 순서로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에서는 등 크기에 따라, 걸릴 위치에 따라 값이 다르게 매겨진 등을 '파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연등은 마음으로 밝히는 마음의 등불

더욱 안타까운 풍경은 불자들이 어간과 불단 가까이 등을 달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 자신을 위해 연등을 켜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습관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절에 가면 이런 등이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장애우를 위하여', '한때의 잘못으로 음지에 살고 있는 재소자들을 위하여', '타향살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희망을 위하여',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와 성취를...'

이런 이야기들이 담긴 꼬리표가 달린 연등이 전국의 사찰들에 걸리기를 기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보다 더 소중한 우리 마음을 담은 남을 위한 기원이 담긴 등이 많이 보이기를 한번 기원해봅니다. (순승현 법사)

복(福)에 대하여-2



(성화사 주교 법공 정사)

리(廣施)-그리고 많이 지어가야 합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이 없건만은, 사람이 아니 오르고 뉘이 높다 하더라.>-양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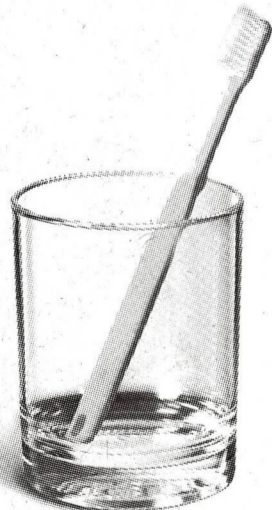
다섯째 - 지은보은(知恩報恩)으로, 입은 은혜는 반드시 잊지 말고 갚을 것이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끼 밥을 먹는 것도 지은 복록(福祿)이 없으면 먹지 못하게 되고 얻어먹는 거지도 복록이 다하면 한끼 밥을 얻지 못하고 굶게 되는 법. 복(福)이 곧 록(祿)이요 록이 곧 복입니다. 빛을 갚지 못하면 복이 감(減)해지는 법이니 하나를 받으면 둘로 값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유하면 예금통장에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자연 잔액(殘額)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잔액이 없어져 빈 통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예컨대 -남에게 빛을 주어 속히 받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 많이 받게 되고 남의 돈 빌려 쓰고 속히 갚지 않으면 이 또한 이자가 붙어 많이 값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여섯째 - 복(福)도 간수를 잘해야 오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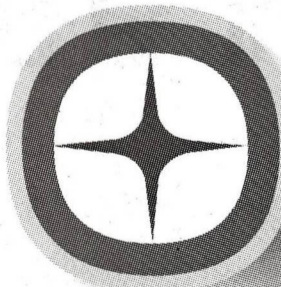
속담(俗談)에 큰 방축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말이 있듯이 -중생은 적은 것은 소홀(疏忽)하고 조금 많으면 함부로 남용(濫用)하는 어리석은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도 간수를 잘못하면 -금강산에 물새들 -재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듯 복도 간수를 잘못하면 일거(一擧)에 그만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예 -힘들게 지은 복(福)도 말 몇마디로 다 까먹는다)>

맺는말 -복(福)보다 좋은 것 없다

이렇듯 형상없는 복(福)이란 것이 있어 우리들에게 유형무형(有形無形)간 지대(至大)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복(福)을 생각하기를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을 연관하여 생각하기 쉬운데 -복이란 인생만사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고(無所不用) 하지 못할바가 없다(無所不爲)하겠습니까. 적게는 한낱 미물, 초목(微物, 草木)이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사람이 도(道)를 이루고 성불(成佛)하는 것도 지은 복이 없으면 안된다 하겠습니까. 이렇듯 복이란 지어만 놓으면 언제 어디에나 쓰이는 여의보주(如意寶珠)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언제 어디서나 많이 짓고 불일입니다. <끝>



자기 전 양치질은 상식입니다
양치 후 자일리톨 껌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롯데 자일리톨 껌

양치 후, 자기 전에 씹는 껌! 롯데 자일리톨 껌

세계적인 건치국,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자일리톨 껌을 씹는 습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5세이하 아동충치발생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 핀란드에서는 음식을 먹은 후에는 물론 단 것을 먹은 후, 심지어 양치 후와 잠자기 전에도 자일리톨 껌을 씹고 있습니다. 자일리톨 껌을 씹는 습관을 지키는 차아 선진국의 지혜-이제, 우리나라도 지켜가야 합니다

자일리톨 껌은 역시 롯데입니다!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만든 자일리톨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롯데 자일리톨 껌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롯데만의 노하우로 만들어 자신있게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인증 껌

롯데 자일리톨 껌



대한민국 대표 자일리톨 껌은 롯데가 만듭니다

총지논단

강태진

(정토신문 취재부장)

한국 재가불교의 지평확대를 위해

진정한 사부대중의 화합을 여는 길

근 국왕과 장자들이 수행자들을 위해 사찰을 건립하고 의복과 음식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시를 행함으로써 교단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가수행자(在家修行者)인 우바세·우바이는 출가



수행자인 비구·비구니의 수행집단인 승단(僧團)을 의외하고, 청정보시(淸淨布施)로 승단의 수행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수행을 통해 '불자로서의 불성(佛性)'을 닦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1백여 년만에 승단이 세속화되고 경전구절과 계율조항에 얽매어 자신만의 수행방법만을 고집하는 부파불교가 성행하게 되고, 그에 의해 신앙에서 유리된 재가자들이 대승불교운동을 펼쳤던 불교사의 경험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과 견주어 볼 때 새삼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바로 그 즈음에 결집된 '유마경(維摩

經)'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의 하나이자 재가보살의 대도(大道)를 밝혀주는 요체로 평가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세속(世俗)의 거사(居士)인 유마거사는 부처님 법의 묘의(妙意)에 통달해서 삼계(三界)의 집착을 떠났고, 처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재가보살의 전형이었다.

가난한 이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고, 이교도를 보면 바른 도를 가르쳤으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술집과 노름판도 마다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바른 자세와 정기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의 잘못된 수행과 처신을 가차없

게를 갖추고 있다. 이들 두 종단의 경우 출가한 독신 수행자가 아닌 재가정사가 종단운영과 교화를 책임지고 있는 점이 진전된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나, 교의(敎義) 체계상 밀교(密敎)종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중화의 속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전반적인 재가단체들은 크게 각 종단 및 사찰별 신도회, 세대별·직능별·직장별 신행단체, 재가연합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재가의 대표성이나 종단운영 참여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신행단체'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가 있다. '종흥종회'는 석주스님(현 철보사 조실) 등 출가 11명과 이후락 당시 전국신도회장, 구태회, 최재구, 홍정식씨 등 재가 6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규수습 차원의 '종단재건회의' 총회 역시 총 50명 중 이후락, 최재구씨 등 재가 8명이 의원으로 참여해 종단운영에 대한 재가자의 책임있는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사찰 및 종단운영에 전문능력을 갖춘 재가대표 참여의 경우 조계종에서는 지난 1994년 이후 '사찰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 재정 및 의사결정에 있어 재가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권을 비롯한 인적·물적 요소들을 승단이 거의 독점한 상태에서 재가는 그 종속적 개념으로 일부 기능적 역할만을 담당해 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날이 문란해지고 있는 출가승단의 수행풍토를 바로잡고 복잡다양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종단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재가지도자의 육성 및 종단운영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미 출가승단 스스로도 무너지는 승가질서와 수행풍토, 독점적 기득권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재가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권위적으로 대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가는 재가대로 적합한 현실속에서 호구지책으로 승단에 빌붙어 '브로커화'되거나, 활동가라는 미명아래 '간판주의'와 '명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도 안타까운 현상이었다.

한편 한국불교 발전에 있어 재가의 위상과 지평을 어떻게 자리매김 해 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또한 불교 본래의 사부대중 화합을 구현하는 접경이라는 점에서 한 재가단체 대표의 아래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문제는 현재 승단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종단운영상의 법적·정치적 권한을 배분하고 나날이 문란해져 가는 승승을 재확립함과 동시에 단순기록에 빠져있는 대다수 재가불자들을 교육과 신행혁신을 통해 얼마만큼 조직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동반자라는 인식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구도의 동반자가 곧 사부대중 아닙니까.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가자는 방관자적 무관심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화합승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재가자는 상호 구도자로서 존중 필요

이 질책했으며,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유명한 법문을 통해 중생과 더불어 사는 재가보살의 수행과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 있어 재가자의 위상은 교단의 한 주체(主體)라기보다는 단순한 신도(信徒)로 전락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종단의 법적 대표권과 재산권, 종단의 행정 및 재정운영 등에 있어 거의 모든 권한이 비구스님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여타의 종단도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다만 총지종과 진각종의 경우에는 독특한 재가 중심의 종단운영

이에 대해서 일부 재가단체에서는 그동안 종단의 대의기구인 총회에의 참여, 사찰 및 종단운영에 전문능력을 갖춘 재가대표 참여, 공식적인 재가법사제도의 인정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경우 일정비를 또는 상징적인 의석배부나 재가자 중심의 하원과 출가자 중심의 상원 등 '양원제(兩院制)' 등이 거론 또는 검토되어 왔으나, "전통을 법에 어긋난다"는 율사(律師)스님들의 반대와 "시기상조"라는 대다수 스님들의 여론에 따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1977년 11월 서용종정 당시 중앙총회 해산의 와중에 구성된 비상대의기구인 '종흥종회'와 '종단재건회의'에 각각 재가자가 참여한 선례

주지스님들의 인식부족과 비협조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종단 차원에서 '성보문화재 보존위원회'나 '사찰환경수호 특별위원회' 등에 일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재가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법률제도 재정운영 등 종단운영의 전반적인 면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인 재가법사제도의 인정에 있어서는 지난 1983년 비상종단 당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가 전법사(傳法師, 教化僧)'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종헌종과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만큼 출가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이 종단의 대표권과 재산권, 행정

정보 다이제스트

◆ 화 잘 내는 사람, 심장마비 위험

성질이 급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5세가 되기 이전에 각종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으며, 심장병 가족력이 없더라도 조기 심장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주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패트리시아 창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지난 1948~1964년 이 대학 의대를 졸업한 1천300명 이상의 지원자를 상대로 분노와 심장혈관질환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분노는 이와 함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기 뇌졸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노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심장질환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카테콜아민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22일 발간된 '이커이비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에 수록됐다.

◆ 녹차, 파킨슨병 예방 효과

녹차가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자들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17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이미

유방암 및 폐암 등 몇 가지 질병의 진행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녹차에 이번엔 화학적 산화방지제가 들어 있음을 밝혀냈다. 파킨슨병은 인간의 동작을 통제하는 도파민 호르몬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파킨슨 병협회의 한 대변인은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녹차가 뇌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 암 피하려면 고기 덜 먹어야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적색육을 하루 85g 이상 먹는 사람은 암 발병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MS NBC가 14일 보도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색육을 주로 섭취하는 여성들은 적색육을 최소한으로 먹는 여성들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나타났다. 또 적색육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 대장암과 직장암에 걸릴 위험성 뿐만 아니라 체지방,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이 발병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각종 연구에 따르면 손상된 세포가 암으로 발전하는데 포화지방이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이 탈 때까지 고기를 완전히 구워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성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 등의 보감

허혈성 심장병 (I)

* 허혈성 심장병이란 ?

심장에는 심장근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즉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액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을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동맥경화 지방 침착이 많아지는 반면에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 등이 지속되면 이 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포함한 혈액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급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위험한가 ?

심장이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은 출생 시에는 비단보다 더 부드럽게 잘 뚫려있고 탄력 있는 혈관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기름기가 쌓이게 되고 서서히 막히게 되며 탄력을 잃어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해지지 않는 한 증상이 전혀 없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고지혈증, 음주와 흡연, 당뇨병, 비만증, 운동부족, 급한 성격, 스

트레스,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증상이 나타나

단순히 숨이 차다거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만으로 이를 허혈성 심장병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상이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지만, 호흡기 질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증상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증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몇몇 예외도 있습니다. 왼쪽 젖가슴 부위에 바늘로 콧구멍 찌르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대개 신경성인 경우가 많고 위험이나 식도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협심증은 가슴 한복판을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 같거나,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증세를 보이고, 간혹 목이나 왼쪽 팔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해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보다 더 심한 심근경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급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구가톨릭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 안옥수>



피리에 있는 윤지와 경주에 사는 준호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합니다...

광케이블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빛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만듭니다



www.lgcable.co.kr

• 광섬유 • 광케이블 • 광소자 • 광부품 • 데이터 케이블 • 광네트워크

현목의 세상읽기



돌이켜보면 내가 그 중 많은 양의 책을, 또 참으로 진지하고...

이른바 신용시대라고 하는 요즘의 사회에서 이들은 일탈자로 취급되기 일쑤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이 나라의 애원견 수가 최소 250만마리에서 많게는 300만마리라고 한다. 하여 서울의 강남에는...

만 개가 하루 목는데 쓰는 숙박비 등의 비용이 가난한 사람에게 정부가...

는 한달 생계보조비에 달한다. 뭐라든가? 잘살아서 그런지 혹은 불란서의 어느 늙은 여배우를 사모해서...

이러한 말조차 호사스러운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참으로 우연히 일치하고 있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간교한 현상 앞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뭐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간교함이야 말하는 내 입이 더러워져 거추차 않겠지만...

250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250만 마리의 애원견

있어야 했기에 독서는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이자 나를 담금질하는 양식이었다. 창살에 손이 짝 달라붙을 정도로 혹독한 추위에서 나를 지탱하려면 제자리뛰기로 몸을 달궈야 했고 독서로 의식을 바로 세워야 했다.

우리 풍양의 고전을 마음껏 읽은 때도 그 때였다. 남이 번역한 고전이지만 내 나름으로는 원문을 함께 대비하고 육면까지 뒤적이며 정독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 어느 잡지에 발표하 바 있는 [식인사회의 처절함]이란 제목으로 쓴 글에서 인용 하였던 맹자의 말씀도 그 때 깊은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던 한 구절이었다.

맹자가 송나라에 머물고 있으면서 송나라 사람 공도자가 '외부 사람들이 모두 선성덕려 말씀을 좋아하신다고 일컬으니, 감히 묻자물건대 무슨 까닭입니까?' 하였다.

이러한 말을 한 때는 맹자의 사십대 후반에 잠깐 송나라에 머물렀다가 그 후 다시 오십대 말과 육십대 초에 송나라에 있었다 하니 지금으로부터 대략 이천삼백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보고 듣자하니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눈앞에 둔 이 4월 현재, 남한에 신용불량자가 무려 250만명이라고 한다. 이네들의 대다수는 은행신용패(카드)를 쓰면서 물품대금이나 현금차용을 제때에 갚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Visual Mago comic strip about the Five Virtues (오온) and their relation to social behavior and credit.

Advertisement for Hani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stitute, featuring Gateaux Cafe and Rano Ttre Bakeries.



총지사 본존봉안불사 및 제59회 춘계 강공 이모저모



▲총지사 본존봉안 제막식에 여러 스승님과 교도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록정 종령, 해암 총리원장, 의강 중앙종의회 의장, 총지화 전 총리원장, 범공 중앙 종의회 부의장, 환수원 서울경인교구장, 범등 총지사 주교, 김은숙 총지사 교도대표가 본존제막을 하였다.



▲육자대명왕진언 올마니반메춤 본존 앞에서 록정 종령님이 법어를 내리셨다. 이날 화려한 담집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본존의 장중함과 화려함은 본존봉안불사 모든 참석자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운하보살 수진대제 운하 원리 능기진연 소위 보살 여제유정 다수습자. 유시인연 대 제진에. (云何 菩薩 修曠對除 云何 遠離 能起曠緣 所謂 菩薩 於諸有情 多修習慈. 由是因緣 對 除曠 - 어떻게 하여야 보살이 성범을 없애는 길을 닦으며, 어떻게 하여야 능히 성범이 일어나는 연을 멀리 여의는가.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너그러움을 많이 닦아 악해야 할 것이다. 이 인연으로 하여 성범을 없애게 되느니라)"라는 법어를 하셨다.



부산 정각사 주교대행 경원정사



대구 개천사 주교 지광정사

지광정사(대구 개천사 주교), 경원정사(부산 정각사 주교대행)가 각각 24일과 25일 59회 춘계강공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지광정사는 설법에서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가르침인 "마음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 불교이다. 마음의 작란(作亂)을 알고 마음의 체성(體性)을 알고 진망(眞妄)의 상쟁(相爭)을 아는 것이 불교이다"는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였다.

특히 "수행자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어리석음과 욕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지혜의 길로 가는 길이다"고 하였다.

경원정사는 '업과(業果)의 착하고 착하지 못한 것은 짓는 바에 따라 받는 것이 결정된다. 스스로 지어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누에와 다름이 없다. 쓰고 땄고 달고 모든 고통과 번뇌가 따르는 것이 그림자가 항상 형체 따르는 것과 같으며, 선지어서 복받는 것은 꽃향기가 멀거나 가까우나 늘 꽃을 따르는 것과 같다'며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에 대하여 설법을 하였다.



▲총지사 본존에 헌화와 향공양을 하고 계신 종령님 이날 500여명의 교도들과 스승님들이 참석하여 본존봉안불사를 봉축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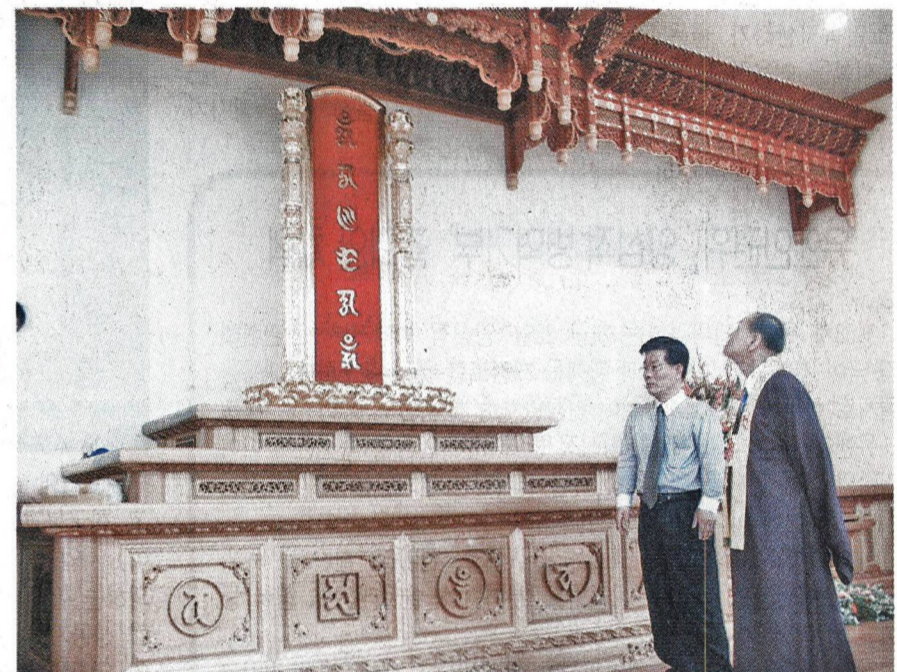


▶연화좌대 위에 본존 올마니반메춤을 조립하고 있다. 상단 관세음보살의 화관을 상징한 모양과 양쪽 금강대안에 본존을 모시고 있다.

▲전국 스승님과 교도들을 위한 맛있는 음식준비에 총지사 교도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응공처의 박성영보살님과 최옥자보살님을 주축으로 한 이들은 4월5일 동안 총 16000여개의 음식을 준비하는 살신성인의 보살도를 보였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닦는 두 보살님과 총지사교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가득 전합니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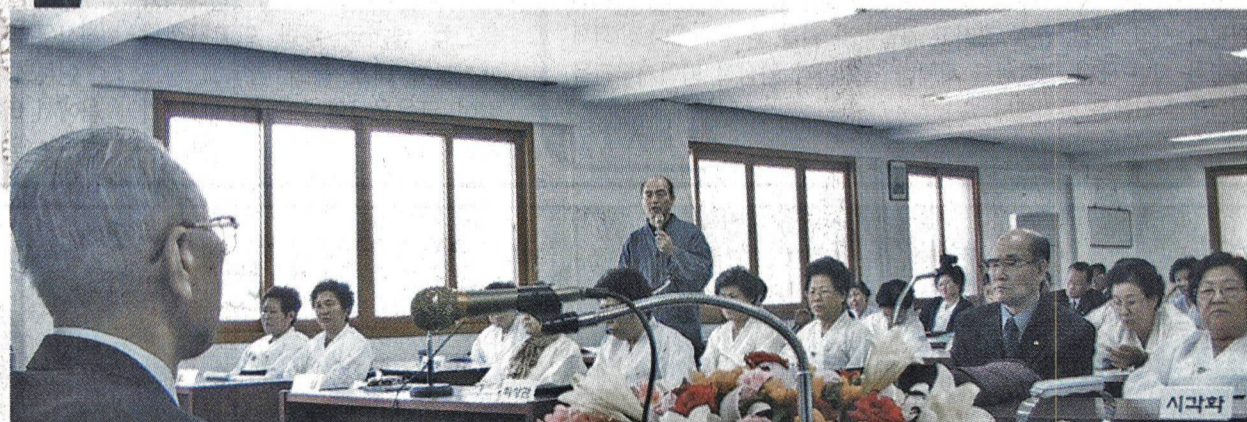


▶가벼운 처림으로 종단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교화활성화와 종단의 발전을 위한 일선스승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계신 록정 종령님.



▲총지사 본존봉안 불사에 앞서 해암 총리원장과 지성 재무부장이 본존앞에서 봉안불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를 하고 계신다.

특히 이번 본존은 전통 불교양식에 기초하여 담집(부처님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불상의 머리 위에 설치되는 것) 아래 육자대명왕진언인 올마니반메춤을 모셨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 사업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재가복지 사업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낯플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리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월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한빛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